민주당–국민의당 선대위 총출동 광주서 진검승부

민주당, 호남출신 수도권의원들 박영선·송영길 참석해 '진심' 호소
국민의당, 광주 국회의원 모두 선대위 상임위원장 선임 '전력투구'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역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호남 민심 구애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공식 선거 개시를 하루 앞둔 휴일인 16일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들이 성당과 향교, 사회복지법인을 잇달아 찾으며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서며 '진검 대결'를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시·도당은 주말인 15일 지역 선대위를 동시에 출범시킨데 이어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금남로에서 각각 선대위 발대식 및 출정식 등을 열고 공식 선거전에 들어간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전남 곡성성당 부활대축일 미사에 참석하며 지역민과 만남을 이어갔다.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김 여사는 1827년 천주교 신자를 탄압했던 정유박해의 진원지인 곡성성당을 찾아 200여명의 신자들과 함께 부활절 미사에 참석했다.

이후 광주로 이동해 유림회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과 환담하고 오후에는 광주 기독교단협의회 주관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뒤 상경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도 참석해 두 후보의 부인이 한자리에 함께 하는 보기 드문 모습도 연출됐다.

김 교수는 예배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미수습자들의 귀환을 기도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 남구 사회복지법인인 소화자매원을 방문해 장애인 보호 시설을 둘러보고 이들을 위로한다.

양당 시·도당도 15일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모두 꾸리고 공식 선거운동기간까지 당의 전 조직을 풀 가동하고, 중앙당 선대위도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감안해 선거운동 첫날부터 광주에서 총력전을 펼친다.

민주당은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이재정·고민정 대변인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거 광주에 내려와 개별 일정을 소화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권의 심장'임에도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참패해 현역 의원이 달랑 3명 뿐인 광주·전남·전북에는 송영길·김현미·김태년 의원 등이 지역 출신 의원들을 대거 내려보내기로 했다.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문 후보와 선대위가 호남 지역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호남에서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며 "호남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귀향선거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시도당은 17일 오전 10시30분 5·18 민주광장에서 시·도당 국민주권 선대위 출정식을 갖는다. 출정식에는 박영선 상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참석해 호남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8명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모두를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선임해 선거전 전면에 포진시킨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선거운동 첫날부터 호남에 전력투구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5일 오후 광주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시도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범식에서 이해찬 시당 선대위 상임위원장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 등과 시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19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15일 오후 동구 호남동 대원빌딩에서 열렸다. 권은희 시당위원장 및 박주선, 장병완 의원 등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檢, 오늘 박근혜 기소 …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 검토

일부 대기업 뇌물공여 혐의 법리검토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수본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중 일부에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법리 검토 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특수본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특수본 2기까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언론의 의혹 보도가 이어지던 중 작년 9월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지만, 의혹이 계속 커지자 한 달 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혹의 장본인인 최씨가 유럽에서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11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씨를 비롯해 그의 이권 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팀은 작년 12월 출범해 90일간 활동했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외에도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을 파고들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지난달부터 2기 특수본을 꾸리고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에 집중했다. 결국, 검찰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美 펜스 부통령 방한 맞춰 … 北, 미사일 발사 '실패'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 도발 주목

북한은 미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 1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1발의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실패한 미사일의 기종 등 세부 내용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발사 실패한 미사일은 지난 5일 신포 일대서 발사된 것과 같은 계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지상 발사시설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를 확인하고 "미사일은 거의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6시42분에 같은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비정상적으로 60여㎞를 비행하다가 동해상에 추락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2박 3일 방한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전후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인 지난 15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전남 수산업 젊은 피로 활기 넘친다

수산업경영인 1206명 중 554명 최다

해양수산부가 젊은 수산경영인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수산업경영인에 전남 출신 554명이 선정됐다. 전국 1206명 중 절반에 조금 못미친다. 16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수산 경영인은 전남이 가장 많고, 경남 181명(15%), 충남 114명(9%), 제주 94명(8%), 전북 79명(7%), 경북 68명(6%) 등의 순이다.

선정 단계별로는 어업인후계자 954명(79%) 중 전남이 435명(46%), 전업경영인 233명(19%) 중 전남이 104명(45%), 선도우수경영인 29명(2%) 중 전남이 15명(52%)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남의 수산업 경영인이 가장 많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국 600명(49.8%) 중 전남 266명(44.3%), 30대는 전국 390명(32.3%) 중 전남 203명(52.1%), 20대 미만이 전국 169명(14.0%) 중 전남 76명(44.9%)으로 타 시도에 비해 전남으로 돌아오는 20~30대 젊은 청년이 가장 많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